

전남 시·군 가뭄 극심...용수 확보 비상

11월까지 평균 누적강수량 평년의 66% 그쳐 저수지 저수율 57%... 414억 들어 준설 추진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가뭄에 허덕이면서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 평균 누적강수량은 898.2mm로 평년(1353.3mm)의 66%에 그쳤다. 11월 강수량은 1.4mm로 평년(32.5mm)의 4% 수준이다. 특히 최근 누적강수량을 이용해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강수지수(SPI)는 11월 21일 현재 담양·곡성·고흥 등 3곳은 '보통 가뭄', 나머지 19개 시·군은 '심한 가뭄' 상

태였다. 나주, 보성,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8개 시·군의 저수율이 특히 낮았다. 3206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 69%보다 12% 포인트 낮다. 다만 이양 전까지 평년 수준의 50%인 212mm 이상 비가 내리면 저수율 63%가 확보돼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 영농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 남도, 보길도, 충도 등 3개 섬에서

는 생활용수가 부족해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주암댐(31.3%), 장흥댐(25.6%), 평림댐(33.4%), 수어댐(63.1%) 등 주요 댐 평균 저수율은 41.6%다. 다행히 광역 상수도 공급지역은 내년 6월까지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농업 분야 가뭄 대책으로 414억 원을 들여 804개 지구에서 저수지 준설, 소규모 수계 연결, 관정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수난이 예상되는 영광 염산, 완도 보길·남도 등 섬 지역에는 22억원을 들여 용수 확보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장성군 평림댐~수양제 비상 연결공사를 마무리했다. 평림댐 저수량이 부족해지면 수로를 통해 수양제 저수지 물을 평림댐으로 하루 최대 1만t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내년 2월까지 강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저수지 준설 등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물 채우기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가뭄은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만큼 지역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에게도 물 절약 실천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농상생 '비빔밥 퍼포먼스' 박원순 서울시장 4일 서울시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도농상생을 상징하는 '비빔밥 퍼포먼스'에 앞서 참여하는 단체장들과 화이팅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도시디자인포럼' 2017년 문화전당 일원서 열린다

오늘부터 3일간

국내외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경관과 문화, 보행,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국제·토론회는 '2017국제도시디자인포럼'이 5일부터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사람과 문화가 있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은 광주시 도시디자인 전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니요시 나오유키 요코

하마시리대 교수가 광주의 도시디자인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제안, 개최하게 됐다. 포럼에는 국내외 도시설계와 건축 분야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5일에는 국내외 초청인사들이 광주폴리 등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디자인 사례를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디자인 투어가 진행된다. 개최식은 포럼 두 번째 날인 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전체회의 I에서는 '도시경관에 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크리스티안 피에르 바흐트 PARAFE 대표, 박병규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에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담겨있는지를 함께 논의한다. 전체회의 II에서는 '보행문화를 도시에서 찾다'라는 내용으로 유르겐 로즈만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디지

마 테츠로 요코하마시청 공무원,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보행 환경의 현황, 방향, 사례 등을 살펴본다. 포럼 마지막 날에 열리는 전체회의 III은 전체회의 I과 II의 주제와 관련된 광주시의 현안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보행네트워크 기본구상안, 광주호를 포함한 무등산 권역의 경관형성 방향, 양동 새들마을사업 마을재생사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경관과 송정역시장 마을재생 사례에 대한 연구과정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토의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드론 이용 농약 종류·살포기준 등 마련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에서 드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종류, 살포높이, 살포농도, 진행속도 등 과학적인 농약살포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세계 드론시장은 2015년 40억달러에서 2025년 148억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탑재장비와 센서를 활용해 작황분석, 파종, 병해충 방제, 토양 시비처방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용 드론 활용은 시작 단계로 안전한 사용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과학적인 농약살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농약의 살포높이, 진행속도별 식물체에 낙하하는 입자수와 식물체의 윗면, 사면, 아래면에 낙하하는 입자를 정밀조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또 배추의 주요해충인 배추좀나방, 파밤나방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약제 선택, 각 해충의 치사농도 및 살포량을 산출했다. 그 결과 드론을 이용한 배추 해충 방제기준을 설정했는데, 방제효과가 우수한 약제는 크로르페나피리프록사수화제, 비스트리플루론·크로르페나피리프록사수화제 2종이었다. 살포방법은 농약을 20배로 희석해 지면에서 3m 높이로 진행속도 10 km/h로 살포하면 식물체에 낙하하는 입자수가 72개/cm²로 해충방제에 충분한 양이 떨어진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박사는 "드론을 이용한 농약살포의 단점이 앞뒤면에 잘 묻지 않아 효과가 낮아지므로 확산보조제 선택이 필요하며, 나아가 작물 맞춤형 방제 매뉴얼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옛 전남도청 앞 시민 열린공간으로 새롭게 변모

김보현 광주시의원 발의

'5·18민주광장 조례안' 통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성회'가 열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햇볕이 타올랐던 옛 전남도청 앞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김보현(민주·서구2) 행정자치위원회가 단독 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5·18 광장이 공익적 행사와 집회, 시위, 문화행사 등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담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동안 5·18 광장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으로 각종 행사 장소로 선호되지만, 구체적인 운영 규정 등이 없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할 경우 행사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국가나 지자체 행사, 집회 신고된 행사,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 어린이나 청소년, 여성, 노인 관련 행사 등은 우선해 사용할 수 있다.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등 손해배상 조항, 사용자 철거 의무 등도 규정했다. 광장 사용료는 무료다. 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된다

우승희 도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전남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는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추모 사업, 왜곡된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 독립운동가 명예회복과 유공자 등록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독립 유공자 7517명 중 광주는 191명(2.5%), 전남은 174명(2.3%)으로 지역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 의원은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이 재평가되고 선양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지역의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이 재조명되어 역사와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독립운동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유공자와 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지원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연 1.75%가능
9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안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검색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2018학년도 신·편입생 및 외국인학생 모집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사자격 미소지자 지원 가능)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302명(야간제, 계절제)
2. 전형구분 - 야간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시·도교육감 추천, 외국인 학생, 편입학)
- 계절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외국인 학생, 편입학)
3. 모집전공 (20개 전공, 계절제는 일부 전공 제외)

초등도덕교육	초등국어교육	초등사회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체육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미술교육
생활융합교육	초등영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과정과수업
교육행정·정책	교육상담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기획	아동문학교육	발명영재·로봇교육	진로진학컨설팅교육

4.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교육상담 전공은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3년 이상 교육경력).
5. 원서접수: 2017.12.5.(화) ~ 12.14.(목)
* 인터넷 접수[http://www.uwayapply.com(유웨이어플라이)]
6. 장 학 금: 입학·수업료장학금, 근로장학금(원우회), 주임교수추천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등
7. 특 전
 - ▶ 교육상담 전공 졸업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초등 2급 이상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경력 3년 이상자)
 - ▶ 졸업시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초등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 졸업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유치원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 위 특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교사 또는 기타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8. 자세한 사항: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모집요강) 참고
* 문의: 062)520-4082~3, http://www.gnue.ac.kr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